

K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옥' 이어 이번엔 우주 SF

넷플릭스, 공유·배두나 주연 '고요의 바다' 24일 공개 "지구와 인류 생존에 관한 이야기"... 정우성 제작자 참여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또 하나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대작을 내놓는다. 이번엔 우주 SF 미스터리다.

넷플릭스는 최근 '고요의 바다'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24일 작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작발표회에는 배우나, 공유 등 출연 배우와 함께 제작 총괄을 맡은 정우성이 최항용 감독, 박은교 작가와 함께 제작자로 참석했다. '고요의 바다'는 정우성과 이정재가 대표로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가 제작을 맡았다.

'고요의 바다'는 필수 자원의 고갈로 황폐해진 가까운 미래의 지구, 특수 임무를 받고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로 떠난 정에 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최 감독의 2014년 동명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마더' (2009), '미쓰 홍당무' (2008)를 쓴 박은교 작가가 각색했다.

정우성은 "많은 SF영화가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그걸 구현한다는 것에 있어서 엄두가 안 나던 시절이 있었다"며 "'고요의 바다'는 똑똑한 설정 안에서 한국적 SF를 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징어게임', '지옥'의 성공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작품마다 고유의 정서가 다

르기 때문에 앞 작품들의 성공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보편적인 사랑을 받느냐의 문제겠지만 막연한 욕심을 쫓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최 감독은 단편 영화에서는 달 기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집중했다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지구의 환경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그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는 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단순히 대원들의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로 고민할 거리를 던져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K-드라마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적 정서가 담겨있는 질문에 박은교 작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다만 "창작자는 자기가 받 믿는 땅에서 영향을 받고, 이는 모든 창작의 근원이 된다"며 "(한국 작품은) 나를 중심에 놓고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출연 배우들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시리즈를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배두나는 달에 버려진 발해연구기지에서 벌어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는 우주생물학자 송지안 박사 역을, 공유는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탐사대장 한운재 역을 맡았다.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김선영, 이준, 이무생, 이성욱 등이 연구기지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정에 요원으로 합류했다.

배두나는 "(원작인) 단편 영화를 봤는데, 한정된 예산과 조건 속에서 놀랍도록 잘 만들어졌다"며 "이번(감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우주 영화도 도전해볼 만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유는 "장르물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느낌표가 10개가 찍히는 느낌이였다"며 "기발한 상상력과 독창적인 소재의 작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한국의 경우 늘 비슷한 장르의 이야기가 소비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았다"며 "그런 고민이 있던 터라 '고요의 바다'에 더 끌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 시리즈는 2700평 규모의 5개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는데, 배우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세트의 질감, 무게 등 디테일한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최 감독은 전했다.



배우 공유, 배두나 주연의 '고요의 바다'가 2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배두나는 8.5kg짜리 우주복을 입고 촬영하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폐쇄공포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 감독은 "달과 지구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도전이었다"며 "달에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옷깃이나 머

리카락이 날리는 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미로 큰 도전이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고, 시청자들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5시 넷플릭스 공개. /연합뉴스

해외 출신 스타들의 2박3일 시골살이

KBS 신년특집 새 예능 '촌스럽게' 내달 첫방

해외 출신 스타들이 한국의 시골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KBS는 신년특집 새 예능 '촌스럽게 in 시크릿 아일랜드' (이하 '촌스럽게')를 다음 달 2일 처음 방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촌스럽게'는 개그맨 김영철, 미국 출신 god 박준형, 태국 출신 갓세븐 뱀뱀, 홍콩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브레이브 걸스 유정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3부작 예능 프로그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KBS 내 국제방송국에서 기획했으며, KBS 2TV뿐 아니라 KBS월드 TV를 통해 114개국에서 방송된다.

또 별도로 디지털 버전을 제작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와 KBS월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오전 9시 10분 KBS 2TV 첫 방송. /연합뉴스



배성우, 음주운전 논란 1년만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복귀

배우 배성우(사진)가 음주운전 논란 후 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23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배성우는 서유민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조연으로 출연한다. 배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소속사는 배성우가 "오랜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며 "지금도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으며, 조심으로 돌아가 연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출연하던 SBS TV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고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가 합류한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08년 개봉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판타지 로맨스다. 도경수가 원작에서 저우제룬(주절문)이 연기했던 남자 주인공 상훈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여왕' 머라이어 캐리 27년 전 캐럴로 빌보드 1위

"아이 돈트 원트 어랏 포 크리스마스, 데이 이즈 저스트 월 씽 아이 니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27년 전 발표됐지만 연말이면 여김없이 거리에 흘러나올 정도로 여전히 인기가 많다. 올해도 성탄 시즌을 맞아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했다.

머라이어 캐리(사진)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다.

이 곡은 2019년 이래 3년 연속 연말 시즌마다 핫 100 1위를 기록해 통산 6주 1위를 차지하는 진 기록을 세웠다. 27년 전 발매된 노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다.

소니뮤직에 따르면 이 노래는 최근 발표된 빌보드 핫 100에서 아델의 '이지 온 미' (Easy On Me)와 더 키드 라로이·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Stay) 등 경쟁한 노래를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다.

소니뮤직은 "이 노래는 연말이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현대 크리스마스의 상징곡이었다"며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은 최근 1천만 판매고를 올려 미국 음반산업 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캐럴 최초로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꽃게랑 약선반찬 전집</p>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성계장, 양념계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p> <p>☎ 010-2315-2058</p>	<p>금남로 사주 카페</p>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p> <p>☎ 010-7495-1577</p>	<p>(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p>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p> <p>☎ 062)223-0177, 010-3642-7320</p>	<p>(주)대신수산유통</p>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p> <p>☎ 062)233-0067, 010-3634-7264</p>	<p>(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p>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p> <p>☎ 062)573-3112, 010-8221-3119</p>	<p>문화결혼상담소</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목)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p> <p>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p> <p>☎ 061)337-7987, 010-7732-6955</p>	<p>면쟁이</p> <p>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p> <p>☎ 010-5459-9664</p>	<p>법무사 황영수 사무소</p> <p>광주시 동구 자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수,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p> <p>☎ 062)226-9966, 010-3002-0816</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탁판매</p> <p>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다흥치마 한정식 전문</p>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p> <p>☎ 062)233-9952, 010-4469-0360</p>	<p>한국기원</p> <p>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p> <p>☎ 010-8610-8373</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 062)222-6866</p>